

장수군, 75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 “日 원전오염수 방류야만적 행위”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2차 접종일 안내·확인서 발급

장수군은 22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접종은 동의한 75세 이상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체온측정, 사전예약 확인, 예진표 작성 및 확인, 예진 및 주의사항 안내를 거쳐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후에는 관찰실에서 15분~30분 동안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접종력 등 전산 등록 및 2차 접종일 안내, 확인서를 발급했다.

75세 백신 예방 접종 첫 날인 이날 현장에는 장영수 군수가 참관해 접종 대상자들과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살폈다.

향후 군은 7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시설의 종사·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개인별 지정된 접종일이 아닐 경우, 사전예약 없이 당일 방문 접종은 할 수 없다.



장영수 장수군수가 22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위해 찾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장수군은 교통 이용과 거동이 불편한 75세 어르신들을 위해 22일 장수읍, 23일 장계면, 26일 계북면·재가노인시설, 27일 계남면·산서면, 28일 천천면·반암면 등 날짜를 지정해 읍·면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75세 이상 고령의 어

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만큼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장수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에 방역에 힘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발판 마련

전춘성 군수 등 aT농식품거래소 방문... 라이브방송 5회 분량 진행 논의

전춘성 진안군수, 관내 각 농협조합장, 군 관계자 등 10여명은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거래소를 방문해 진안군의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지난날 23일 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거래소 운영본부장 등을 초청해 농특산물 판매전

락 간담회를 개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유통시장 개척 및 온라인 판매·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aT농식품거래소를 방문한 군 관계자들은 비대면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aT의 시스템 운영방식에 대해 정취하고, 관련 시설을 견학한 데 이어 진안군 대표 농특산물 및 가

공식품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농식품거래소의 자체 온라인 판매망을 이용한 라이브방송 총 5회 분량을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군은 현재 aT에서 진행 중인 해당 라이브방송은 최근 시간당 최고 매출 1억5,000만원, 접속인원 13만명을 경신하는 등 영향력 있는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문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22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전북시의회연합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제262차 월례회의에서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동·서 교통망 구축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무주~김천간 철도 연결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문은 지난 4월 13일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채택되어,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하여 청와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전라북도·무주군에 송부된 바 있다.

무주군의회는 동·서를 잇는 국가교통망 구축이 단절된 영호남의 지역을

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연결로 새만금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 및 물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국가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 및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해양은 분명한 인류의 공유자원이다. 공유자원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인접국가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극한 이기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일본이 ‘마셔도 되는 수준’의 정화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염수를 정화해도 인체 내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주변국가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 야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무주군의회는 또한 “세슈,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염수 방류는 먹이사슬을 이루는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생태계 최

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몸에 그대로 축적된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생화학무기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의 안전과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생화학무기 공격과 다름없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주변국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영구대책 강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에 국제전문가 참여 및 처리과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하려면 해양생태계와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역사적 과오를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금지를 규탄한 바 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하여 청와대, 외교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안전속도 5030’ 준수하세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장수읍과 장계면 등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의 속도가 제한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군은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장수읍과 장계면 등 관내 도심지의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20개구간에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제한속도 구간은 장수읍 장천로·장

계면 장무로·백화로 구간 등이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됐으며, 기존 50km 구간이었던 남동생길·문화로 등 30km, 호비로·장수북동길·관두길·한들로·북동1로 등 40km에서 30km구간으로 속도가 제한됐다.

군은 대상구간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와 속도 제한구간 표지판 설치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주민세 100% 감면

무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로, 감면액은 8월에 과세되는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22만원의 주민세(기본세율) 정기 분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도서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

앞으로 무주군민들이 무주도서관에 치매극복 도서 코너가 마련되면서 치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됐다.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22일 전라북도교육청 무주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현관 전달식은 이동훈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해 옥경중 무주도서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은 치매에 대한 자료를 통합적이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치매관련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에 치매 정보 허브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 교육·홍보 활동과 정보제공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무주도서관 내에 치매 도서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며 5월 3일부터 치매극복도서 코너에 비치된 도서를 읽고 인성깊은 구절을 작성해 도서관에 제출한 도서관 이용자에 한해서 선착순 100명에 게 홍보물품을 제공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벼 키다리병 예방 위한 온탕소독기 지원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종자에서 오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온탕소독기를 지원했다.

키다리병이란 벼가 웃자라 말라버리는 병으로 최근들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은 이를 방제를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 재배농가, 대규모 육묘장(육묘농가) 등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온탕소독기를 공급해 방제에 큰 효과를 봤으며, 올해는 23대를 해당 농가에 지원했다.

온탕소독기는 벼를 60℃ 물에 10분간 담고 찬물에 식힌 것이며 약제소독은 온탕소독 마친 것을 30℃ 물에 약제를 넣고 48시간 소독과 함께 발아시켜 파종하는 것으로 기존 침지소독만 실시하여 파종하는 것보다 키다리병 예방효과가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